

# 조선대, 호남권재활병원 운영권 결국 포기하나

광주시와 10년간 위탁운영 계약 1년여 만에

대학측 “환자 유치 어려움…누적 적자 16억”

“재활 분야만 진료 경제적 타당성 전혀 없어”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조선대학교가 운영 1년여 만에 경영 부진을 면치 못해 운영 포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재활병원은 현행 진료 체계상 구조적으로 자립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일뿐만 아니라

대학 측에서도 적자를 메워주면서까지 더 투자할 여력이 없는 만큼 운영 포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과 직원 기본급을 수년간 동결한 상황에서 재활병원의 누적 적자가 16억원에

달한다”며 “도덕적인 비난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학은 재활병원을 광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기로 협약한 주체인 대학 법인의 이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조속히 운영 포기 방안을 검토·확정 할 방침이다.

시비 165억원, 국비 135억원을 들여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재활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0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재활병원의 진료 자체가

재활분야로 제한, 환자 유치가 어려워 전체 156병상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여 병상만 가동돼 ‘반쪽 운영’이라는 비난을 샀다.

강은미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위·수탁기관인 광주시와 조선대병원의 노력 부족으로 과행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들은 재활병원이 노인 관절 분야나 정형외과 분야 등의 진료없이 재활 분야만 진료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성을 띠 재활병원

을 장기간 운영하기로 해놓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조선대 측은 예상하고서도 초기 적자를 이유로 시의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1~2년이라도 사활을 걸고 운영해도 적자가 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지만 자구노력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가 우리 대학 홍보대사”

13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2014 홍보대사 선발 공개 면접에 참가한 한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끼를 뽐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과학고 입시 자기소개서에 스펙쓰면 최하등급

수학·과학 내신성적은 ‘성취평가제’ 적용

과학고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입상 경력과 같은 이른바 스펙을 쓰게 되면 해당 영역이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2015학년도 과학

을 유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에 이같은 스펙을 썼다가 적발되면 해당 지원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평가영역에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중학교 수학·과학 내신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내신성적의 반영 학기·비율 등은 시·도교육

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의 내신성적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자기계발계획의 명칭을 ‘자기소개서’로 변경하고 2개 영역, 5200자 분량을 1개 영역, 3천자로 줄였다.

현재 담임과 교과 담당이 4000자 범위에서 썼던 교사추천서는 수학, 과학 등 교과 교사가 1천자 내로 작성하게 했다.

시·도교육청과 과학고는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2015학년도 입학전형 상세계획을 다음 달 중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럽평견적은 놓지 않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  
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가격  
59  
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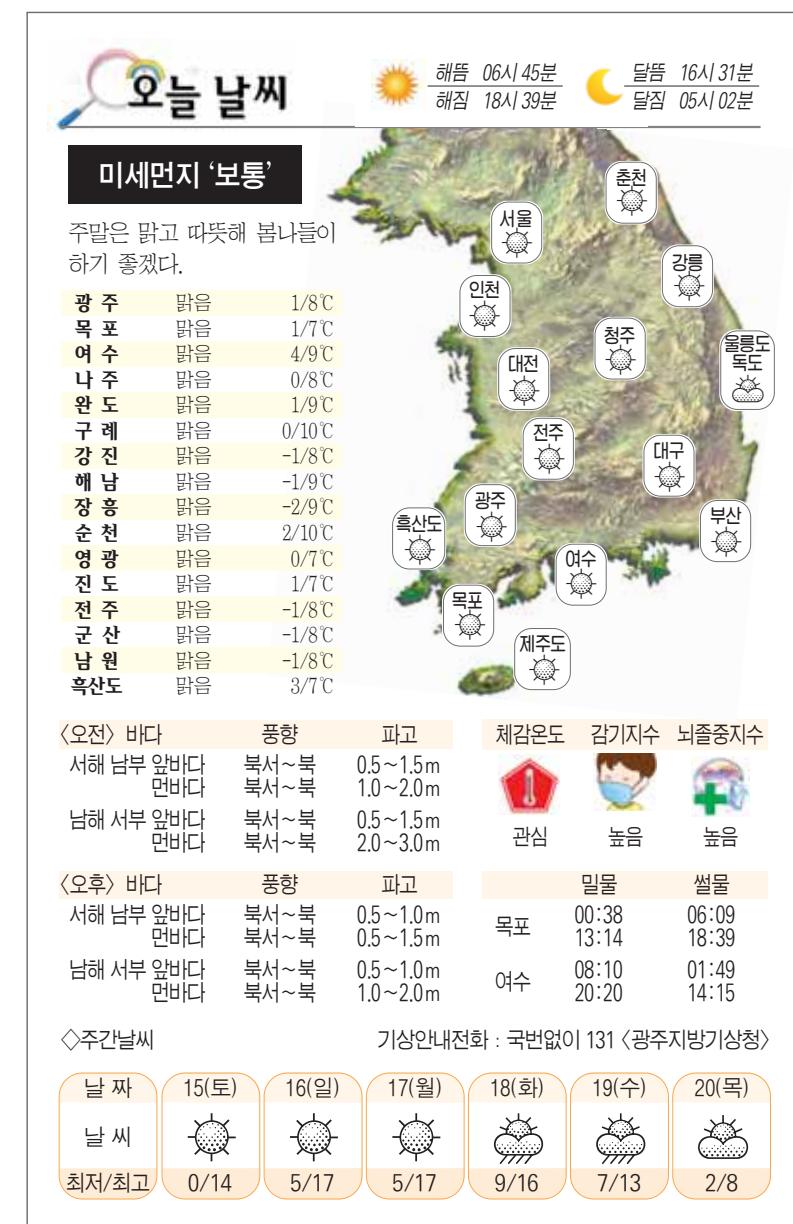
검색

광주  
광  
산  
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전  
라  
목포[건경] 243-7463  
남  
순  
744-8605  
도  
여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 ‘달마시안 880’ 신발이 뛰길래

드라마 ‘별그대’서 김수현 운동화 유명세에

지역 백화점 3곳 매장 모두 30분만에 ‘완판’



1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신세계백화점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여명의 고객들이 지하 N관발 매장으로 달렸다. 전날 매장에 입고된 67켤레의 ‘달마시안 880(사진)’ 모델을 사기 위한 고객들로, 매장 판매가 시작되기 11시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졌다.

미리 신발 가방을챙겨오는가 하면, 지불할 돈을 빼들고 “언제 판매를 시작하느냐?”며 매장 점원을 다그치는 순님도 보였다.

해당 모델은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완판’됐다. 이 날 50켤레가 새로 들어온 광주 롯데백화점, 40켤레가 들어온 NC 백화점도 비슷했다. 매장 문연 30분도 끝에 모두 팔려나갔다.

이 신발은 한국에만 한정 판매

되는 모델로 알록달록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최근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김수현이 신고 나온 뒤부터 더욱 구매자가 몰리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가격도 13만9000원으로 싸지 않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게 매장 측 설명이다. 줄을 서 신발을 구입한 김보(23·북구 중흥동)

씨는 “매장 직원에게 ‘일주일 전 미리 입고 날짜를 파악해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